

## 교환학생 수학보고서

### 1. 기본정보

학과		이름	안*진
파견국가	미국	파견도시	샌 안토니오
파견대학	University of the Incarnate Word	파견기간	2014.8-2015.5

### 2.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파견대학	<p><i>파견대학 위치, 규모 및 시설,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.</i></p> <p>University of the Incarnate Word는 텍사스 주 도시 중 샌 안토니오에 위치해있습니다. 학교는 샌 안토니오 중에서도 Alamo Heights라는 부유층이 주로 살고 쾌적한 곳에 위치해있습니다. 또한, 캠퍼스가 Broadway에 위치해 있어서 주변에 식당도 많이 있습니다. 학교 정문 바로 옆에 큰 식료품 점이 있어서 요리를 해먹거나 끼니를 때우기에도 좋았습니다. 캠퍼스의 크기는 작은 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설이 뒤떨어진다고 하진 않습니다. 그리고 학교가 작은 만큼 학생들 간의 교류가 더 활발하고 친밀하였습니다. 학생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헬스장과 수영장도 있습니다.</p>
2014-2학기 수업	<p><i>본인이 수강한 과목,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.</i>  <i>예) 수업내용, 수업방법, 과제, 수업준비, 추천과목, 비추천과목 등</i></p> <p>International Business Management: 이 수업은 전반적인 국제 경영에 대한 수업입니다. 시험은 총 세 번 있었는데 앞에 두 시험 성적이 좋으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마지막 시험은 보고 싶으면 보고 안 보고 싶으면 안 봐도 되는 시험이었습니다. 수업 진행이 빨라서 시험 분량이 많아서 공부하는데 좀 애를 먹었지만 시험은 그리 어렵진 않았습니다.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나뉘어있었는데 시간이 좀 빠듯하긴 했습니다. 조별 과제도 있었는데 교과서에 나오는 경영 관련 된 사례에 대해 조사하거나 아니면 한 나라를 정해서 분석하는 거였습니다. 발표도 해야 했고 레포트도 제출해야 해서 팀원을 잘 만나지 않으면 결과물이 잘 안 나올 수도 있겠죠. 저는 다행히 원래 알고 있던 친구랑 같이 하게 되어 서로 분량 배분을 잘 해서 아무 탈 없이 잘 했지만 다른 조 중에는 중간에 수업을</p>

2015-1학기 수업	<p>drop해서 다른 조원들에게 피해를 끼친 학생도 보았어요. 수업을 들을 때는 '아 이 교수님은 우리가 이 수업만 듣는 줄 아시나.' 하고 생각도 들었는데 다 듣고 나니 기억에 남는 정보도 많았고 수업을 다 들었다는 것에 대한 성취감도 얻은 수업이었습니다.</p>
	<p>Elementary Italian I: 이탈리아어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추천하고 싶습니다. 언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탈리아라는 나라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이 바뀐다고 들었어요. 어쨌든 이 수업은 Italian I 수업인 만큼 이탈리아어 말에 있어 중요한 토대가 되는 걸 꼼꼼히 다지는 식의 수업이었습니다. 중간고사, 기말고사를 제외하고 Oral Exam이 두 번에 걸쳐 있었고 300자 분량의 에세이도 제출했습니다. 언어 수업인 만큼 인터넷으로 복습 위주의 과제도 했습니다.</p>
	<p>Principles of Macroeconomics: 거시 경제학에 대해 교수님께서 쉽게 쉽게 설명해주신 수업입니다. 저학년 수업이다 보니 더 그랬던 것 같아요. 한 학기 동안 퀴즈가 두 번 중간, 기말고사가 있었는데 모두 home taking 시험이라서 압박감도 없고 수월하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수업이었습니다.</p> <p>Business Law: 전반적인 법률에 대해 공부한 수업이었습니다. 교수님께서 변호사 출신이셔서 그런지 정말 다양한 사례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. 다만 말이 좀 빠르셔서 잠시라도 딴청을 피우면 뭐라고 하신지 놓칠 때도 있었습니다. 따로 과제는 없었고 중간, 기말고사만 있었습니다. 시험도 교수님께서 시험 전에 리뷰 해주셔서 집어준 것만 제대로 공부하면 시험 보는 데 문제가 없는 과목이었습니다.</p>
	<p><i>본인이 수강한 과목,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.</i>  <i>예) 수업내용, 수업방법, 과제, 수업준비, 추천과목, 비추천과목 등</i></p> <p>American Literature Survey: 솔직히 처음에 drop을 할 지 말 지 정말 고민 많이 한 과목입니다. 한국 영문과 수업에서 하필 번역이나 영문법 위주의 수업을 들은 지라 미국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영문학을 접하게 된 점이 처음에는 많이 버거웠습니다. 수업은 초기 미국소설부터 현대까지 쭉 다루고 수업 시간 마다 작품을 읽어가지 않으면 수업 내용을 따라가기 어려웠습니다. 그래서 매주 어떻게든 작품을 미리 읽어가려고 했고요. 과제는 작품을 읽고 나서 response를 300자 정도 써야 했는데 20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. 그 외에도 작품 분석 과제도 두 번 있었는데 최소</p>

1,250자 최대 1,500자 정도 써야 했습니다. 미국에서 대체적으로 쓰는 레포트 형식인 MLA style을 숙지하지 못하고 에세이를 써서 처음에 정말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교수님과 면담 후 문제점을 파악하고 양식을 맞추니 두 번째 작품 분석 성적은 무난하게 잘 받았습니다. 중간, 기말 시험은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예상 문제를 관찮은 걸 본인 메일로 보내달라고 해요. 그럼 그 중에 추린 거랑 교수님께서 내신 문제로 예상 문제지를 줍니다. 시험 시간에 필수 문제 하나와 자기가 자신 있는 문제 하나 해서 에세이 두 개를 쓰면 됐습니다. 교수님께서 점수는 전반적으로 짜게 주셨습니다.

Women's Writing: 다양한 나라의 여류 작가 작품을 다루는 수업입니다. 교수님은 친절하시고 점수나 과제 제출 이런 거에 있어서 정확하고 자세하게 코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. 역시나 이 수업도 작품을 미리 읽어가지 않으면 수업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꼭 작품을 읽어 가야 했습니다. 총 12번 정도 되는 퀴즈가 있었는데 가끔 예습을 못하고 가서 엉망인 점수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. 중간, 기말고사 대체 과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한 여성을 인터뷰해서 그를 토대로 에세이 형태든 소설 형태든 글을 쓰는 거였고요. 나머지 하나는 한 학기 동안 읽었던 작품 중 맘에 드는 걸 자신이 원하는 주제에 맞춰 작품을 분석하거나 아니면 전반적인 여성에 관한 주제를 정해놓고 레포트를 쓰는 것이었습니다. 최소 12장 분량의 과제였으니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. 학기 막판에는 과제에 시험에 할 게 너무 많으니 저도 늑장 부리다가 나중에 후다닥 마무리해서 제출했거든요. 전반적으로는 학생들이 본인 생각도 많이 말하고 교수님께서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수업이었는데 너무 학생 위주의 수업으로 가끔 진행될 때는 수업을 다 듣고 나서 내가 지금 뭘 듣고 나왔나 할 때도 있었습니다.

Principles of Microeconomics: 거시경제학 교수님이 마음에 들어서 미시경제학도 같은 교수님 수업을 들었습니다. 수업 진행 방식은 똑같았고 미시경제학인 만큼 전반적인 경제학보단 세분화된 개념에 대해 배웠습니다. 미시경제학도 저학년 수업이어서 별 어려움 없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수업입니다.

Elementary Italian II: Elementary Italian I에 비해 확실히 학생 수가 적었지만 그만큼 교수님께서 개인적인 작문이나 활동 등에 많이 챙겨주셔서 더 심도 있게 이탈리아어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. Elementary Italian I을 들었다면 II까지 꾸준히 배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

	<p>가벼운 교양 정도가 아니라 여기 아니면 따로 이탈리아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없겠구나 생각으로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서 일 년에 한 번씩 각 언어 수업 우수학생에도 뽑혀서 상도 받고 했어요. 이탈리아어 말고도 여러 언어 있으니 학점이 많이 남는다면 언어 수업 듣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. 과제나 시험은 Elementary Italian I과 동일하게 이루어졌는데 좀 더 회화 위주의 수업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.</p> <p>Gourmet Cuisine: 요리를 만드는 수업입니다. 그룹 별로 음식을 하나씩 정해서 매주 다른 음식을 만들었습니다. 수업이 끝나면 다 같이 모여서 그 날 만든 음식을 같이 먹고 수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. 가볍게 일반 선택으로 듣기에 좋은 과목이었습니다. 요리 수업이라 재료비로 \$180를 학기 초에 돈을 내야 했지만 매주 수업마다 끼니를 때울 수 있어서 돈이 아깝다고 생각이 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.</p>
<p>프로그램 운영</p>	<p><i>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</i>  예) 오리엔테이션,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, 담당부서, 담당자명, 상담 프로그램 등</p> <p>University of the Incarnate Word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있습니다. 일단 개강 전 1~2주 전부터 교환학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잡혀있습니다. 일단 학교에 도착하면 생필품이 필요한 교환학생들을 위해 큰 밴에 태워 마트를 수시로 데려다 줍니다. 그리고 날짜 별로 다양한 일정이 잡혀있습니다. 다운타운, 쇼핑몰, 미국 내 큰 놀이공원, 영화관 등등 이 곳 저 곳을 같이 온 교환학생들과 함께 이동하며 다닙니다.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학기 중간중간 틈틈이 이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.</p>

### 3. 생활전반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날씨	<p><i>현지 기후 및 유의점</i></p> <p>샌 안토니오는 거의 일년 내내 덥다고 보면 됩니다. 텍사스 내에서도 남쪽에 위치해 있거든요. 사실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숨이 막히는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한국보다 습하지 않아서 며칠 지나고 나니 38도가 육박하는 더위도 적응이 되었습니다.</p>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안전</p>	<p><i>현지 안전 상황</i></p> <p>학교 주변은 정말이지 안전합니다. 특히 학교 내에는 Campus Police가 항시 있어서 치안이 아주 좋았습니다. 다운타운이야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노숙자들도 많고 하지만 그래도 위협을 느꼈거나 한 적은 없었습니다. 여자라면 밤 늦게 혼자 돌아다니지만 않으면 괜찮을 거예요. 그리고 남부 사람들이다 보니 현지인들은 대개 친절하였습니다.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숙소</p>	<p><i>학교기숙사( ) 홈스테이 ( ) 외부 숙소( ) 기타( )</i>  <i>기숙사 이름, 숙소 시설, 분위기, 규칙,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</i></p> <p>제가 머문 기숙사 이름은 Hillside I 입니다. 싱글 룸에 화장실까지 있는 방이었습니다. 홈페이지에는 딱히 사진이 올라와있지 않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처음 방에 딱 들어서면 순간 시설이 좋아서 놀랄 정도였습니다. 혼자 쓰기에는 충분히 넓고 천장도 높아서 답답하지도 않았습니다. 미국은 음주 가능한 나이가 만 21살 이후라서 같이 쓰는 주방에 있는 냉장고에 따로 술을 보관하지 못하는 점만 빼면 딱히 다른 규정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. 한 층에 20명정도 같이 각자 방에서 지내고 방을 나오면 따로 주방이 있습니다. 그리고 공부방도 있어서 시험기간에 많이 이용했구요. 세탁기와 건조기도 여러 대 구비되어 있습니다.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식사</p>	<p><i>학교 Meal Plan ( ) 학교식당 개별이용 ( ) 홈스테이 ( )</i>  <i>외부식당 ( ) 직접 요리 ( ) 기타 ( )</i>  <i>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,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</i></p> <p>주로 밀 플랜을 이용하였습니다. 처음에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은 무조건 밀 플랜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걸 알고는 한 번에 큰 돈이 빠져나가니 부담이 된다고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밀 플랜을 왜 꼭 신청해야 하는지 알겠더라고요. 사실 기숙사에 주방이 있어도 잘 음식을 해 먹게 되지도 않고 밖에서 나가서 사먹으면 비싸니 학교 내 카페테리아에서 밀 플랜을 이용해 식사를 할 수 있으니 정말 편했습니다. 카페테리아는 횡수를 본인이 정한대로 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에 Dining Dollar라는 거로는 카페테리아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음식을 파는 곳에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. 샌드위치, 피자, wings, 커피 등등 다양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는 되도록이면 사비로 밥을 먹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은 카페테리아에서 한 번은 Dining Dollar로 끼니를 주로 때웠고,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하루 한 끼는 카페테리아 이용 저녁은</p>

	외식을 하곤 했습니다. 텍사스가 대부분 간을 세계 해서 처음에는 음식이 짠데 며칠 먹다 보니 그것도 적응 되서 잘 먹었습니다. 당부하고 싶은 건 주변에 카페테리아에서 매끼 챙겨먹은 교환학생 여학생들 중에 급격하게 살이 찐 친구들도 있었으니 먹은 만큼 꼭 헬스장 가서서 운동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.
교통	<p>통학방법, 시내교통, 주요도시 이동 관련</p> <p>시내 교통은 VIA Bus를 이용하시면 됩니다. 학교 앞에 오는 버스가 세대가 있는데 아무 버스나 타면 다운타운에 바로 갈 수 있어서 편하답니다. 그 외에도 큰 마트도 학교 앞에서 버스를 타면 바로 갈 수 있습니다.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택시를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</p>

#### 4. 소요경비 (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)

단위 : 원

항목	비용	비고(간략한 비용내역 등)
항공료	왕복 약 235만원	왕복 권을 구매한 후 귀국 전에 귀국 티켓 스케줄을 조정 해서 수수료 \$150만 더 냈습니다.
Fees	1학기: \$500 2학기: \$695	
보험료	\$1,070 교환학생들은 모두 다 자매대학에서 제공하는 보험을 이용해야 했습니다.	
숙소	학기당 \$3,760	
식비	밀플랜 학기당 약 \$1,245 (세금 포함) 그 외 한 달에 약 \$300	
교통비	학기당 \$35	학생들은 VIA Pass를 \$35에 사면 한 학기 내내 그 pass만 보여주면 언제나 버스를 탈 수 있었습니다.
책값	1학기: 약 \$500 2학기: 약 \$200	

기타1		
기타2		
합계	약 \$18,345	

## 5. 출국 전 준비사항

*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,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 
(분량 자유)*

쇼핑 몰 가면 싼 옷들 많고 대부분 건조기로 옷을 돌리기 때문에 집에 있는 비싼 옷들은 망가질 수도 있고 하니 가져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혹시 미국에서도 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국제 면허증 챙겨오시면 편하실 거예요. 그리고 본인 나라에 대해 소개하거나 본인 학교에 대해 설명하는 행사가 있었으니 한복이나 한국을 상징하는 물품 그리고 학교 팸플릿 같은 거 가져오면 좋을 거예요. 마트에 가면 조그만 전기 밥솥 같은 것도 파니까 밥 못 먹을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.

## 6. 본인 소감 및 평가

*본인의 경험담, 느낀점,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.  
(분량 자유)*

한국인들이랑만 붙어 다니는 건 정말 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. 미국까지 와서 한국인들이랑만 놀려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까지 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영어 실력을 정말 늘리고 싶다면 교환학생들은 다들 영어로 쓰니 교환학생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것도 좋고요. 가장 좋은 건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를 사귀는 거라고 생각해요.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과끼리의 단합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. 자기 과 수업을 듣지 않고 타과 수업을 듣는 게 우리나라로 치면 교양이 되는 거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내가 영문과라고 해서 그 쪽 영문과 학생들이 챙겨주거나 하는 게 없어요. 그러니 수업 시간에 같이 옆에 앉는 친구한테 먼저 인사라도 한마디 하면서 친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학생들이 대부분 무리를 지어 다니는 데 우리나라처럼 과끼리 다닌다기 보단 수영부, 축구부, 농구부 이런 식으로 과를 제외하고 같은 곳에 소속되어 있는 친구들과 대부분 움직입니다. 솔직히 그런 딱 무리 지어있는 곳에 어울려서 지내는 사람은 딱히 없었던 것 같고요. 아무튼 학교 내에 보면 무리들이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. 한 마디로 본인이 열심히 친구를 사귀려고 하면 충분히 사귄 수 있는 상황이니 쑥스러워도 누구한테든 먼저 말 한마디 걸어 보는 게 좋습니다. 무엇보다도 제가 미국 교환학생 중 가장 잘 했다고 생각하는 점은 틈틈이 여행을 했다는 점입니다. 추수감사절, 스프링 브레이크, 부활절 휴일 등등 여행을 갈 수 있는 시간은 정말

많습니다. 평소에 생활비를 조금씩만 줄이면 충분히 이 곳 저 곳 많은 곳 여행할 수 있을 거예요. 마지막으로, 샌 안토니오는 멕시코 국경 지역에 근접하게 위치한 만큼 솔직히 미국이라기 보단 멕시코 느낌이 많이 났습니다. 다른 점은 괜찮았는데 전형적인 미국 문화를 느끼고 싶던 저로서는 그 점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. 아마 중부 쪽이 전형적인 미국 문화를 많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샌 안토니오 오실 때 이 점은 알고 오셨으면 합니다.

### 7. 사진보고서(6장 이상)



기숙사 올라가는 계단에서 바라본 캠퍼스 전경입니다.



Hillside I 기숙사 내부 모습입니다.



교환학생들끼리 본인 나라에 대해 소개한 날에 찍은 사진입니다.



다운타운 모습입니다.



요리 수업 중 디저트 주제 만든 음식들  
입니다.



각 언어 수업 우수학생 시상 후 찍은  
사진입니다.